

면허 갱신 운전면허시험장 연일 ‘북새통’

갱신 대상자 역대 최대… 매일 대기 인원 50~100명
현재 갱신 완료 70%대 그쳐… 대상자 중 2만 명 남아
기간 초과 시 과태료 2~3만원… 시험장 “되도록 빨리”

제주의 운전면허시험장이 올해가 끝나기 전 면허 갱신을 위해 몰린 시민들로 연일 북새통이다.

올해 제주지역 면허 갱신 대상자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며 연말을 앞두고 더욱 혼잡이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8일 오전 10시쯤 제주시 애월읍 소길리 제주운전면허시험장을 찾은 김모(63)씨는 “면허 갱신 기간이 올해까지인데 요새는 평일 점심시간이면 사람들이 몰린다고 해서 일부러 일찍 방문했다”며 “이른 시간에 찾아와 대기가 길지 않아 다행”이라고 말했다.

시험장 민원 안내 직원은 “월요일부터 수요일이 가장 바쁘고 오후가 되면 줄이 엄청 길어서 정신이 없다”며 “오늘은 날이 좋아서 어르신들이 감귤을 따러 갔는지 상대적으로 한산하다”고 설명했다.

이날은 시험장이 비교적 한가하다는 금요일이었기 때문에 대기 시간은 15분 내외로 긴 편은 아니었

다. 하지만 대기번호는 금세 100번 대를 넘겼고, 접수 창구는 면허 갱신을 위해 찾은 중장년층과 면허 시험 차례를 기다리는 청년들이 뒤섞여 북적거렸다.

또 오후 2시쯤에는 시간당 50여 명의 대기자가 발생하는 등 북새통을 이뤘다. 몰려드는 방문자들로 인해 직원들은 적성검사(신체검사)를 위한 서류 작성을 돋고, 면허 갱신과 면허 시험 줄이 엉키지 않도록 안내하며 분주한 모습이었다.

장모(60대)씨는 “대기 시간이 길긴 해도 면허시험장에서 신체검사도 받고 면허증도 바로 받을 수 있어서 매번 시험장을 찾는다”며 “제주는 대중교통이 불편해서 80세 전까지는 운전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주운전면허시험장에 따르면 올해 도내 운전면허증 갱신 대상자는 7만808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지난 21일 기준 면허증 갱신을 마친 도민은 4만9771명(70.2%)에



운전면허를 갱신하려는 밸길이 이어지면서 운전면허시험장이 연일 북적이고 있다. 양유리기자

그친다. 2만명 이상이 약 한달 사이 갱신 절차를 마쳐야하는 셈이다.

도로교통법상 면허 갱신 기간을 초과하면 2~3만원가량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종 면허 갱신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하지만, 1종 면허 갱신은 적성검사가 필요하다. 적성검사는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가능하고 갱신 시점으로부터 2년 내에 받은 건강검진 내역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갱신 기간은 1·2종 모두 10년이고 65세 이상은 5년 주기, 75세 이

상은 3년 주기다.

제주운전면허시험장 관계자는 “연말이 다가오면 매번 면허 갱신 대상자들이 방문해 바쁘지만 올해는 그 시기가 일찍 찾아왔다”며 “점심시간 쯤에는 1시간 이상 대기하는 분들도 많아서 시간당 대기 인원이 100명을 훌쩍 넘는다. 12월이 넘어 가면 4시간까지 대기 시간이 발생할 수 있어 빠른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유리기자 glassy38@ihalla.com



늦가을에 즐기는 유채꽃 풍경 따뜻한 날씨를 보인 지난달 29일 서귀포시 성산읍 유채밭을 찾은 많은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으며 제주의 정취를 한껏 느끼고 있다. 강희만기자

가을 끝자락, 제주 곳곳 걷기행사 ‘풍성’

연삼로·원도심 일대…11월 대미 장식 차없는 거리 걷기·고상돈 걷기 대회

11월 마지막 날, 제주시 연삼로와 원도심 일대가 가을의 막바지 정취를 만끽하려는 도민과 관광객으로 북적였다.

제주특별자치도는 30일 제주시 애향운동장과 연삼로 일대에서 열린 ‘2025 제2회 차 없는 거리 걷기행사’에 도민과 관광객 2만여 명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애향운동장을 출발해 JIBS 제주방송을 반환점으로 돌아오는 왕복 4km 구간에서 진행됐다.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연삼로 보건소거리~마리나거리 양방향 차량 통행을 통제해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개방했다.

이와 함께 페이스페인팅, 에어바운스, 패밀리 립보게임, 캐릭터 퍼레이드, 맨발 건강지 압판 체험, 캐리커처, 줄넘기 퍼포먼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개회식에서 “11월 끝

어 가장 좋은 날씨 속에 시민 여러분과 함께 걸을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도민과 함께 단소중립 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원도심에서도 제주 출신 산악인 故 고상돈 대장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전국 걷기대회가 열렸다.

제주시 건입동·칠성로 일대에서 열린 ‘2025 제15회 산악인 고상돈 전국 걷기대회’에는 전국 산악인과 걷기 동호인 등 1000여 명이 참여해 제주 역사와 고상돈 대장의 도전정신을 되새겼다. 故 고상돈 대장은 1977년 9월 15일 한국인 최초로 에베레스트 정상에 오른 제주 출신 산악인이다.

참가자들은 칠성로 상점가에서 출발해 고상돈 생가터, 김만덕기념관, 주정공장수용소 4·3유적지, 사라봉·별도봉을 지나 탑동광장 까지 에베레스트 정상 높이와 같은 수치인 총 8848m를 걸었다.

특히, 올해 행사에는 1977년 한국 최초 에베레스트 등정에 나섰던 김병준·김명수·이상윤 전 대원과 고상돈 대장의 배우자 이희수 씨가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오소범기자

제주지역필수의사제 16명 지원

제주를 포함해 지역의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올해 7월부터 시행한 지역필수의사제 모집에서 정원(96명)의 84%가 채워졌다.

30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강원, 경남, 전남, 제주 등 4개 지역에서 진행 중인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에 지원한 전문의는 81명으로 당초 예상보다 많은 인원이 지원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이 24명으로 정원을 100% 채웠고 이어 경남 22명, 전남 19명, 제주 16명 등이다.

지역필수의사제는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의 지역 장기 근무 유도를 위해 근무 수당과 주거 등 정주 여건을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내년에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역 2곳을 추가 선정하는 등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백금탁기자

찬 공기 남하… 오늘부터 기온 ‘뚝’ 기상청 “강풍 동반해 체감기온은 더 낮아”

12월 첫주부터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제주지역은 춥겠다.

30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1일부터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고, 2일부터는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다. 급격한 기온 변화로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1일 아침 최저기온은 12~13°C(평년 6~9°C), 낮 최고기온은 14~19°C(평년 13~16°C)가 되겠다. 2일 아침 최저기온은 6~9°C(평년 6~8°C), 낮 최고기온은 11~16°C(평년 13~16°C)로 예상된다.

이번 주 초에는 곳에 따라 비 또는 눈이 오겠다. 1일 오전 시간대에 0.1mm 미만 빙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이어 제주도산지에는 2일 오후 9시부터 자정까지 비 또는 눈이 내리면서 쌓이는 곳도 있겠다. 예상 적설량은 제주도산지 1cm 미만, 예상 강수량은 1mm 안팎이다.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에서는 도로가 미끄럽고 가시거리가 급격히 짧아지는 곳이 있겠다. 구름이 유입되는 산간도로를 중심으로 가시거리 500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도 있어 운전에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참가 신청은 1일 오전 10시부터 오는 8일 오후 5시까지 제주진로진학지원센터 누리집 (<https://jinjak.jje.go.kr>)에서 할 수 있다.

2026학년도 대입 정시모집 지원전략 설명회가 오는 11일 오후 3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본관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2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 대상자는 도내 고등학생과 보호자, 교사 등 120여명이다. 2026학년도 정시모집의 주요 사항에 관해 안내될 예정이다.

김채현기자

제1회 한라일보배 전도태권도 품새대회 개최를 축하합니다
안전하고, 즐거운 제주여행!
(주)유한고속관광이
고객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통학버스(등·하교)/현장학습/수학여행
오름친목/결혼수송(전세버스 80대 보유)

Welcome to Jeju

<http://www.yeuhangosog.com>

(주) 유한고속관광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북로 377
TEL. 724-9595, 0995 FAX. 724-4411